

# 기혼여성의 취업과 자녀출산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sup>1)</sup>

An Economic Approach to Market Work of Married Women and their Fertility

서울대학교 소비자동학과

조교수 여정성

Dept. of Consumer & Child Studies, Seoul National Univ.

Assistant Prof.: Yeo, Jung Sung

## 〈목 차〉

I. 서론	II. 이론적 모델
III. 분석자료 및 연구모델	IV. 결과 및 해석
V. 결론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analyze the market-labor participation of married women and their demand for an additional child. The theories from 'Economics of Fertility' by Willis and Beckerian 'Household Production Model' were applied to develop the theoretical model. For the empirical analysis, National Data for Fertility in Korea was used. Even though the model was fully developed based on economic theories, only the psychological or value-related variables were appeare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That means, in Korea, the decision-making for market work and fertility are still following the traditional way as it is.

### I. 문제의 제기

####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960년 이후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여성의 의식구조의 변화 및 여성노동력에 대한 수요의 증가로

인해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1975년과 1992년을 비교하면 남성의 경우 경제활동참가율이 2.1% 감소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9% 증가하여 1993년 현재 47.2%로 나타났다(통계청 1994). 하지만 전통적으로 여성이 담당해 온 가사노동으로 인하

1) 본 연구는 인하대학교 '92년도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여 많은 취업여성들이 결혼을 계기로 취업을 중단하거나 아니면 전업에서 시간제 고용으로 직장을 바꾸는 경향이 있었다. 이를 통계로 보면 1980년 20-24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53%이었는데 5년 후 이들이 25-29세가 되는 1985년에는 참가율이 36%로 크게 하락하였다(어수봉 1991). 그리고 가장 최근인 1993년의 통계에 의하면 유사그룹인 35-39세에 59.3%로 다시 참가율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또한 유가호 등(1992)의 연구에 의하면, 대구지역 생산직 기혼여성의 경우 응답자의 반이 근무연수가 3년 미만이며, 74.5%가 적어도 한번 이상 직장을 옮긴 적이 있었으며, 이직 이유로는 결혼과 출산이 19.0%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노동시장에서 치명적이었던 이러한 단속성을 극복하기 위해 최근에는 과거에 비해 여성들의 결혼 후 또는 출산 후 이직율이 낮아지면서 기혼여성의 취업율은 상대적으로 더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미 여자은행원의 경우 60%가 기혼여성이라는 현상이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어수봉 1991)

기혼여성의 취업증가는 전통적으로 여성이 담당하던 가사노동 중에서도 특히 자녀양육에 있어서 "주부 또는 어머니"가 아니면서 이를 담당할 수 있는 새로운 노동력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게 된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집안의 유희가족노동력이나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비숙련 여성노동력을 이용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 왔다. 하지만 지난 10여년 간의 지속적인 물가상승, 임금의 상승, 그리고 기타 여성노동력 수요의 증가는 이러한 대안의 이용을 어렵게 만들었으며, 또다른 대안인 취학전 아동에 대한 공공보육시설의 공급이 활발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혼여성의 취업증가와 함께 자녀양육 또는 보육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여성개발원의 연구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취업여성의 취학전 자녀수는 151만명에 이르나, 이들 중 국가기관의 보육혜택을 받는 아동은 13.2%에 불과한 형편이며(한국여성개발원 1988), 특히 생활비를 벌기 위해 취업하여야만 하는 영세지역 저소득층 취업주부의 경우에는 탁아비용을 지불할 수 없어 65.6%의 주부가 미취학자녀를 그대로 집이나 작업장에 방치하기도 한다(변화

순 1989). 즉 노동시장참가의 단속성을 극복하고 미래의 소득상승을 기대하면서, 화폐·시간비용 및 심리적 비용을 당사자인 주부와 자녀 및 가족구성원이 사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자녀양육문제는 앞으로 가정을 형성하거나 자녀를 갖고자 하는 개인에게 새로운 의사결정요인으로 나타날 것이며, 이는 총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인구구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즉, 결혼이 더 이상 아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처럼, 이러한 여건의 변화에 따라 결혼과 함께 자녀를 갖는 것이 삶의 순서처럼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는 지난 30년간 기혼여성의 취업이 출산력을 감소시키고 출산시점을 뒤로 미루어 왔다는 결과(조대희·김유경 1993)에서도 미리 그 가능성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은 1960년의 6.0명 수준에서 1970년의 4.5명 수준, 1980년의 2.7명 수준으로 급격히 저하되어 1987년과 1990년에는 1.6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출산력의 저하에는 물론 가족계획사업의 영향이 가장 컸지만 위와 같은 여성의 취업 등 그 밖의 요인도 간과할 수 없다. 그러므로 기혼여성인력 공급구조와 출산력의 변화를 정확히 예측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자녀수 또는 혼인상태라는 변수의 효과만을 연구하던 기존의 사회학적 또는 인구학적 틀에서 벗어나 자녀양육과 시장노동참가간의 관계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특히 출산은 선택이 가능하고, 자녀는 부모에게만 속감을 주며, 출산과 양육에 비용이 따른다는 점에서 출산과 양육은 일종의 경제적 행위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경제학적 접근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G. Becker, T.W. Schultz 등의 가계생산이론(Household Production Theory)과 자녀출산 및 양육의 경제학(Economics of Fertility & Children)의 이론 등을 이용하여 새로운 이론적 모델을 개발하고 실제자료를 통해 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갖는다. 첫째, 기혼여성의 노동시장참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 보고, 둘째, 노동시

장참가는 앞으로의 출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 보고자 한다.

## 2. 관련연구의 고찰

지금까지 소비자경제학 및 노동경제학 분야에서 진행되어 온 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여성의 노동공급과 혼인상태 및 출산력(Fertility)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으로서, 대개 출산력은 경제활동참가를 감소시키며, 경제활동참가 또한 출산력을 감소시킨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 (1) 노동참가에 관한 연구

노동공급은 노동시장에 참여하여 일을 하느냐 안하느냐의 양자택일인 노동참가와, 일단 노동시장에 참가하여 취업한 근로자가 노동공급량을 조절하는 두가지를 모두 지칭한다. 일반적으로 1차 노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성인 남자근로자의 경우에는 대부분 노동시장에 참가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참가문제보다는 노동공급량 문제가 연구의 주된 관심사가 되어 왔지만, 기혼여성노동의 경우에는 그동안 2차 노동력으로 간주되어 왔기 때문에 노동참가의 문제를 중요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임금율, 교육수준, 취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등이 기혼여성의 시장노동참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남편의 소득, 자녀수 등이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검증되었다. 그중 특징적인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임금율: Mincer(1960)는 시장임금상승 결과 나타난 정의 대체효과가 남편소득의 상승으로 인한 부적 소득효과를 압도함으로써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상승추세를 보임을 입증하였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남편의 임금에 대한 아내의 상대적 임금이 높을수록 두드러진다.(Kim 1977)

자녀수: 일반적으로 자녀가 있을 경우 노동참가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Bowen과 Finegan(1969)에 의하면 6세 미만의 자녀만 있을 때보다 6세 미만의 자녀와 그들을 돌보아 줄 수 있는 나이에 해당하는 자녀가 같이 있을 경우 어머니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정의 상관관계가 있음이 입증되었다. 이는 첫째, 높은 교육수준은 노동시장에서 잠재적 임금가득능력을 높이고 그로 인한 정의 대체효과가 부적 소득효과를 압도하여 나타나는 금전적 효과와 둘째, 높은 교육수준으로 비금전적 근로조건에의 우위성을 확보하게 되는 심리적 효과를 반영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심경옥(1984)에 의하면,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노동시장에의 참가가 낮아진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대해 그는 고학력일수록 타소득에 해당하는 남편소득이 높기 때문에 나타난 부적 소득효과를 반영한 것이며, 또한 요구임금수준이 시장임금수준보다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타소득이라는 변수도 같이 이용하였기 때문에 첫째 이유보다는 두번째 이유가 더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즉 노동시장 내에 고학력 여성노동자의 학력에 상응하는 임금이나 고용기회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은 데서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2) 출산력과 노동력 공급에 관한 연구

196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경제학자들은 자녀출산이라는 행위는 비경제학적 행위이며, 경제학의 영역을 벗어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물론 그사이 소득의 증대가 출산력의 상승을 가져올 것이라는 Malthusian Proposition이 그 반대의 현황과 부딪쳐 논란을 빚기는 했었지만, 전통적인 소비자선택이론으로 자녀출산행동을 설명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Becker, Schultz등의 신주류경제학 즉 "Economic Theory of the Family"가 체계화되면서 이러한 영역에 대해서도 경제학적 접근이 가능하게 되었다.

최초로 Becker(1960)는 자녀출산이 경제학적 이론틀로 분석이 가능할 것이라 가정하고, 소득과 자녀출산간의 정적인 관계를 예상하였다. 또 그는 자녀양육의 비용과 질이 서로 구별되어야 하며, 특히 자녀양육의 질은 부모가 선택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1960년대에는 소득과 출산력간의 관계에 대해 횡단 및 종단분석이 많이 행해졌지만, 그 분석결과는 일관성이 있지 않았다.

Mincer(1963)는 남자나 미혼여성과는 달리 기혼여성의 시간배분시 가사노동까지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소득-여가분석방법은 여가-노동-가사의 삼자택일 여건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출산력에 대한 소득효과라는 단순한 문제로부터 시장임금율로 추정된 기혼여성의 시간비용이 출산과 부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을 검증함으로써 자녀양육비용과 출산력간의 관계로 초점을 바꾸었다. 그후 Becker(1965), Schultz(1969) 등이 이를 이론으로 정리하였으며, 많은 실증연구들이 '기혼여성의 시간비용의 상승은 출산력을 감소시키지만 반면 소득효과는 알 수 없다'는 Mincer의 논의를 지지하였다.

Cain과 Dooley(1976)는 출산력과 경제활동에 대해 양방향으로 다 검증하였는데, 출산력이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예상외로 0에 가까우면서 유의하지 않거나 정의 방향으로 유의하였으며, 반면 경제활동이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은 예상대로 부의 방향으로 유의하였다.

우리나라의 자료를 분석한 구성열(1979)의 연구에 의하면, 부인의 출산력은 자녀교육에 대한 열의 및 부인의 가득임금수준과 유의적으로 부의 관계를 보였지만, 출산력과 경제활동사이의 관계는 다소 약한 부의 효과를 보였다. 이때 자녀교육에 대한 열의라는 변수는 자녀양육에 있어서의 질적인 면을 나타내는 가변수로 이용한 것이다. 또한 지역별로 많은 차이가 났는데, 대도시 부인들의 경제활동은 임금수준에 민감하게 관련된 반면, 소도시에 거주하는 부인들은 취업기회의 유무에 민감하였다.

구성열과 이선민(1980)은 초과출산, 즉 희망자녀수와 실제자녀수의 차이가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행하였다. 결과를 보면 부인의 취업율은 초과출산수준에 대하여서 대체로 증가함수로 나타났지만 집단마다 다른 성격을 나타내었는데, 과소출산은 취업활동을 저하시키는 경향이 있었으며, 과다출산집단에서는 적정집단보다 평균적으로 낮은 취업활동을 하지만 과다출산아수가 많을수록 취업활동을 증대시키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지난 30년간에 걸친 우리나라의 출산력 자료를 종합비교한 조대희·김유경(1993)은 전체적으로

불 때 앞으로 출산력의 결정에 있어 연령, 초혼연령, 피임사용, 인공임신중절 등 인구생물학적 요인들과 취업관계 변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대신, 교육수준, 소득, 거주지역 등 기타 요인들의 영향력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전망했다.

위의 관련연구에 대한 검토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임금을, 연령, 교육, 소득수준의 등의 사회경제학적 변수들이 출산력과 노동공급에 영향을 미치며, 두 변수는 서로 영향을 미치며 동시적으로(simultaneously)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 II. 이론적 모델

### 1. 기본 모델

가계는 시장에서 구입된 재화와 각 구성원의 시간을 투입요소로 생산되는 가계상품과 여가시간으로부터 효용을 얻게 된다고 가정하자. 즉,

$$U(Z, L; PS) \text{ where } Z = (Z_1) \\ \text{subject to } Z_1 = f(X_1, H_1)$$

여기서 각각  $U$  = 가계총효용;  $Z$  = 가계생산된 상품;  $L$  = 여가시간;  $PS$  = 선호도;  $X$  = 생산에 투입되는 시장에서 구입된 재화;  $H$  = 생산에 투입되는 시간요소 등이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산되는 가계상품 중에는 건강, 오락, 영양, 깨끗한 옷 등과 같은 것이 포함될 수 있다. 여기서 시간과 구입된 재화로 생산되어 부모들에게 만족감을 가져오는 가계상품으로서의 자녀(C)를 고려해보자. 즉 자녀를 위하여 투입하는 요소의 양을 변화시킴으로써 자녀의 질과 수를 변화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만족감과 불만족감을 가질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상품을 합쳐서  $G$ 로 표시한다면, 이는 가족의 전반적인 소비생활수준을 나타내 주는 부분이 된다. 이때 가족의 효용은 자녀, 기타 상품, 그리고 여가의 함수이며, 자녀생산함수와 기타 상품의 생산함수는 기술적 제약조건이 된다.

$$U(C, G, L; PS)$$

$$\text{subject to } C = C(X_c, H_c)$$

$$G = G(X_g, H_g)$$

여기서  $X_c$  = 자녀생산에 투입되는 시장에서 구매된 요소;  $H_c$  = 자녀생산에 투입되는 시간요소;  $X_g$  = 기타 상품의 생산에 투입되는 시장에서 구매된 요소;  $H_g$  = 기타 상품의 생산에 투입되는 시간요소 등이다.

분석을 단순하게 하기 위하여, 위의 두 생산함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자. 첫째, 동질적인 선형생산함수(linearly homogeneous and identical production function)로 한계생산력은 항상 0보다 크며, 둘째, 어떤 결합생산(joint production)도 없으며, 셋째, 부모는 자녀의 질을 선택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자녀수에 대해서도 완전한 통제가 가능하다.

위와 같은 기술적 제약조건이외에 시간제약조건과 소득제약조건이 있다. 재화를 구매하기 위한 소득은 가계원의 시장노동에 의해 산출되므로, 개인은 정해진 양의 시간자원을 시장노동, 가정노동, 자녀양육, 그리고 여가에 각각 배분하게 된다. 또한 가계의 총소득은 시장노동에 의한 근로소득과 재산 등에 의한 비근로소득으로 이루어지며, 가계는 가계생산에 필요한 재화를 시장에서 구매할 때 소득을 지출한다. 이를 식으로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

$$24 = M + L + H_c + H_g$$

$$Y = wM + V = P_{xc} \cdot X_c + P_{xg} \cdot X_g$$

$$\Rightarrow w(24 - L - H_c - H_g) + V \\ = P_{xc} \cdot X_c + P_{xg} \cdot X_g$$

여기서  $M$  = 시장노동시간;  $w$  = 가계원의 시장임금율;  $V$  = 비근로소득;  $P_{xc}$  = 자녀생산에 필요한 시장에서 구입된 재화의 시장가격;  $P_{xg}$  = 기타 상품의 생산에 필요한 시장에서 구입된 재화의 시장가격;  $24$  = 개인이 가진 하루의 총시간이다.

마지막으로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대신 시장노동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주부는 시장노동에 의해 획득된 화폐소득으로 가계생산에 필요한 재화뿐만 아니라 가계생산을 대신할 대체노동력을 구입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즉 취업주부의 경우 시간자원을 시장노동

에 투입하는 대신 창출된 소득으로 탁아서비스와 기타 가정서비스를 구입하여 자녀와 기타상품을 가계 내에서 생산하게 된다. 이러한 가정을 이용하면 위의 생산함수는 아래와 같이 변하게 된다.

$$C = C(X_c, H_c + T_c)$$

$$G = G(X_g, H_g + T_g)$$

여기서  $T_c$  = 자녀양육을 위하여 시장에서 구입한 대체노동력의 시간요소;  $T_g$  = 기타 상품의 생산을 위하여 시장에서 구입한 대체노동력의 시간요소이다. 대체노동력의 가격, 즉 임금율은  $w_c$ ,  $w_g$ 로 각각 다르게 주어진다고 가정하자. 물론 이때 어떤 가계의 경우 시장에서 구입한 자녀양육서비스 즉 탁아서비스를 가계구성원의 양육과 대체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가계가 있다면 이 식은 달리 표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여기서 각 가계가 두가지의 연속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첫 단계는 생산결정으로 각 가계상품을 생산하는데 사용하는 생산요소들의 적절한 배합을 결정하는 것이고, 다음 단계는 소비결정으로 얼마큼의 가계상품을 생산하고 소비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우선 첫 단계의 결정을 살펴보자. 위와 같은 제약조건하에서 가계는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게 된다. 이를 Lagrangian 함수로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

$$\mathcal{L}_1 = U[C(X_c, H_c, T_c), G(X_g, H_g, T_g), L] \\ - \lambda[w(24 - L - H_c - H_g) + V - P_{xc} \cdot X_c \\ - P_{xg} \cdot X_g - w_c \cdot T_c - w_g \cdot T_g]$$

위의 식을 투입요소로 미분함으로써 균형조건과 투입요소에 대한 수요함수를 구할 수 있다.

## 2. 균형조건과 수요함수의 도출

그중 자녀생산함수에 대해서만 살펴보면 Lagrangian Function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일차균형조건이 도출된다.

$$\partial \mathcal{L} / \partial X_c = (\partial U / \partial C)(\partial C / \partial X_c) - \lambda P_{xc} = 0$$

$$\partial \mathcal{L} / \partial H_c = (\partial U / \partial C)(\partial C / \partial H_c) - \lambda_w = 0$$

$$\partial \mathcal{L} / \partial T_c = (\partial U / \partial C)(\partial C / \partial T_c) - \lambda_{w_c} = 0$$

다음과 같이 한계효용과 한계생산력을 정의하자.

$$MU_c = (\partial U / \partial C)$$

$$C_x = \partial C / \partial X_c$$

$$C_h = \partial C / \partial H_c$$

$$C_t = \partial C / \partial T_c$$

이러한 정의를 이용하여 위의 세 식을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나타낼 수 있다.

$$\begin{aligned} (MU_c \cdot C_x) / P_{xc} &= (MU_c \cdot C_h) / w \\ &= (MU_c \cdot C_t) / w_c \end{aligned}$$

즉, 균형에서는 시장에서 구입되어 자녀생산에 투입된 투입요소의 한계효용을 그 요소의 가격으로 나타낸 것이 모든 투입요소에서 동일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모든 생산요소에서 마지막 단위가격당 한계효용이 같은 점에서 균형이 이루어지며, 생산요소인 X, H, T의 한계생산력과 그 상대적 가격이 자녀생산에 있어 최적요소량을 결정짓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C와 G사이의 선호도가 아닌 생산의 기술적 측면만이 고려된다는 것이다. 위의 식을 다시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C_x / C_h = P_{xc} / w$$

$$C_h / C_t = w / w_c$$

즉, 총효용을 극대화할 때 자녀생산에 있어 각 생산요소의 한계생산력의 비는 생산요소가격의 비와 같게 된다. 다시 말하면, 생산요소들의 가격비를 안다면 한계기술대체율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위의 균형조건에 따라 도출된 생산요소에 대한 수요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X_c^d = x(P_{xc}, P_{xg}, w, w_c, w_g, V; PS)$$

$$H_c^d = h(P_{xc}, P_{xg}, w, w_c, w_g, V; PS)$$

$$T_c^d = t(P_{xc}, P_{xg}, w, w_c, w_g, V; PS)$$

두번째 식은 자녀를 위해 부모가 투입해야 하는 시간에 대한 수요함수이며, 세번째 식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 자녀를 양육하게 되는 자녀보육에 대한

수요가 된다. 이들은 자녀양육에 필요한 시장재화의 가격, 기타 시장재화의 가격, 본인의 임금율, 보육자의 임금율, 기타 가계생산을 담당할 사람의 임금율, 비근로소득에 의해 결정된다.

### 3. 가계생산된 상품에 대한 수요와 균형조건

지금까지 가계생산을 위해 투입되는 생산요소에 대한 수요함수를 살펴보고, 이제 가계생산된 상품에 대한 수요를 살펴보자. 우선 위에서 언급된 시간과 예산제약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

$$w(24 - L - H_c - H_g) + V = P_{xc} \cdot X_c + P_{xg} \cdot X_g$$

이를 아래와 같이 정리하자.

$$\begin{aligned} wL + (P_{xc} \cdot X_c + wH_c) + (P_{xg} \cdot X_g + wH_g) \\ = 24w + V \end{aligned}$$

이때  $(P_{xc} \cdot X_c + wH_c)$ 는 생산된 자녀상품의 총가치, 그리고  $(P_{xg} \cdot X_g + wH_g)$ 는 기타 가계생산된 상품의 총가치가 된다. 이를 아래와 같이 변형한다.

$$\begin{aligned} wL + [(P_{xc} \cdot X_c + wH_c) / C] \cdot C + [(P_{xg} \cdot X_g \\ + wH_g) / G] \cdot G = 24w + V \end{aligned}$$

이때  $[(P_{xc} \cdot X_c + wH_c) / C]$ 와  $[(P_{xg} \cdot X_g + wH_g) / G]$ 는 단위당 가치가 되며, 이를 각각 자녀상품의 잠재가격(shadow price),  $\pi_c$ 와 기타 생산된 상품의 잠재가격,  $\pi_g$ 로 정의할 수 있다.

$$\pi_c = [(P_{xc} \cdot X_c + wH_c) / C]$$

$$\pi_g = [(P_{xg} \cdot X_g + wH_g) / G]$$

이를 이용하여 예산제약식을 다시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

$$wL + \pi_c \cdot C + \pi_g \cdot G = 24w + V$$

위에서 언급했던 두번째의 의사결정인 가계생산된 상품에 대한 수요함수를 도출하기 위해 이를 Lagrangian 함수로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

$$\begin{aligned} \mathcal{L}_2 = U[C, G, L] - \theta[w(24 - L) \\ + V - \pi_c \cdot C + \pi_g \cdot G] \end{aligned}$$

위의 식을 투입요소로 미분함으로써 아래와 같은 가계생산된 상품에 대한 수요함수를 구할 수 있다.

$$C^d = c(\pi_c, \pi_g, w, V; PS)$$

$$G^d = g(\pi_c, \pi_g, w, V; PS)$$

$$L^d = l(\pi_c, \pi_g, w, V; PS)$$

$$M^d = 24 - L^d = m(\pi_c, \pi_g, w, V; PS)$$

즉 자녀에 대한 수요는 생산된 자녀에 대한 잠재가격, 생산된 기타재화의 잠재가격, 임금을, 비근로소득, 그리고 선호도 등의 함수이다.

그러므로 이를 이용하여 오른쪽의 설명변수들이 기혼여성의 노동시장참가와 자녀에 대한 수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할 수 있다. 또한 위와 같은 자녀수요함수를 구하는 과정 중에서 균형조건을 통해 예측되는 결과를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 (1) 소득변화와 자녀수요

부모는 다른 재화로부터의 효용과 자녀로부터의 효용간에 균형을 맞출 뿐만 아니라, 추가자녀로부터의 만족과 이미 가진 자녀의 질의 추가적인 상승으로부터의 만족감을 비교하여야 한다. 이때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자녀의 질에 대한 수요는 자녀수에 대한 수요에 비해 더 급속히 증가한다. 이에 따라 자녀 자체는 정상재라 할지라도 부유한 가계는 가난한 가계보다 더 적은 자녀수를 가질 것이며, 그들은 자녀들에게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할 것이다. 그러므로 가계소득과 가족크기간의 부적상관관계를 어느 정도 설명하여 준다고 할 수 있다.

#### (2) 임금을의 변화와 자녀수요

임금상승으로 인한 소득의 증가는 자녀와 기타 상품에 대한 수요 양쪽을 다 증가시키지만 그 상대가격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에 따라 그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녀생산은 다른 상품을 생산하는 것보다 더 시간집약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므로 기혼여성의 시간가치가 높아질 때 자녀생산은 상대적으로 더 비싸지게 되며 따라서 가계는 자녀대신에 기타 상품의 생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일정한 만족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기타 재

화의 소비를 위해 자녀의 인적자본을 기꺼이 포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시간집약적 생산”으로부터 “재화집약적 생산”으로 생산양식이 바뀌게 된다면 그 효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타나게 된다.

#### (3) 상품가격의 변화와 자녀수요

자녀가격이 높아질 때 자녀수요는 결국 자녀가 정상재라 가정할 때 음의 소득효과와 음의 대체효과가 합쳐서 자녀수요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나타날 것이며, 기타상품가격이 상승할 때는 기타상품과 자녀상품간에는 대체재라기보다는 보완재의 관계를 갖기 때문에 자녀수요 역시 감소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 Ⅲ. 분석자료 및 연구모델

#### 1.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는 분석자료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집한 ‘1991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를 이용하였다. 이 출산력조사는 1991년 5월에서 6월에 걸쳐 전국적으로 표본추출된 총 12,312가구에 대해 면접한 것이다. 1985년 인구센서스의 조사구를 이용하여 추출하였기 때문에 이 표본의 일반적 특성은 1990년 인구센서스결과를 기초로 추계한 1991년의 인구분포와 거의 유사하였으며 전국적 대표성을 확보하는 데는 무리가 없었다(공세권 1993). 이중 본 연구에서는 부인조사가 완료된 15세에서 49세 사이의 기혼부인 총 7,462명중에서 현재 결혼중이며 배우자가 생존해 있고, 영구피임을 실시하지 않은 출산이 가능한 40세 이하의 부인, 총 2,570명을 최종표본으로 하였다.

#### 2. 연구모델

위에서 아래와 같은 가계생산된 자녀에 대한 수요와 노동공급함수를 구할 수 있었다.

$$C^d = c(\pi_c, \pi_g, w, V; PS)$$

$$M^d = 24 - L^d = m(\pi_c, \pi_g, w, V; PS)$$

그런데 경험적인 분석모델을 개발함에 있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어떻게  $\pi_c$ 와  $\pi_g$ 를 측정할 것인가이다. 이를 위해 다시 한번 두 가격의 정의를 살펴보자.

$$\pi_c = [(P_{xc} \cdot X_c + wH_c)/C]$$

$$\pi_g = [(P_{xg} \cdot X_g + wH_g)/G]$$

이는 두가격이 구입된 생산요소의 가격, 시간가치가 변함에 따라 달라짐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위의 자녀수요함수와 노동공급함수를 생산요소를 이용하여 다시 표시하면 아래와 같게 된다.

$$C^d = c(P_{xc}, P_{xg}, w, w_c, w_g, V; PS)$$

$$M^d = l(P_{xc}, P_{xg}, w, w_c, w_g, V; PS)$$

또 한가지 고려해야 하는 점이 있다. 위의 모델에서는 자녀출산과 노동공급이 동시에(simultaneously) 결정되는 것을 가정하였지만, 만약 자녀출산이 선행의사결정이 된다면, 노동공급곡선은 자녀수를 외생 변수로 하여 새롭게 설정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 기혼여성의 출산을 선택의 여지없이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은 상태이므로, 적어도 첫째 자녀에 있어서는 '가질 것인가, 안가질 것인가'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는 뒤에서 논의될 자료검증에서도 확인되었는데, 본 연구에서 이용한 인구조사자료에서는 전체 기혼부인중 89.7%가 결혼을 하면 반드시 자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물론 연령에 따라 이러한 경향은 조금씩 달라졌다. 이렇게 될 경우 수요곡선은 아래와 같은 조건부 수요곡선으로 변하게 된다.

$$M^d = l(P_{xc}, P_{xg}, w, w_c, w_g, V; C, PS)$$

즉 자녀출산이 이루어진 후에 보육서비스를 구입하고 직장을 계속 다닐 것인지 아니면 직장을 그만둘 것인지 변경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되며, 다음 출산에 대한 결정은 취업상태를 변수로 아래와 같은 새로운 수요곡선이 될 것이다.

$$C^d = c(P_{xc}, P_{xg}, w, w_c, w_g, V; PS)$$

즉 여기서 simultaneous system이 아닌 recursive system을 가정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수요함수를 실증적으로 추정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하였다. 첫째 위의 변수 중에서  $P_{xc}$ ,  $P_{xg}$ ,  $w_g$ 는 일종의 물가수준과 같이 모든 가계에서 동일하다고 가정할 수 있으므로 가계 간의 차이를 가져오지는 않는다고 생각되어 추정에서 이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본인이 상대적으로 부유하다고 여길 경우 더 실이 높은 생산요소를 구매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계생산된 상품의 품질을 나타낸다는 의미에서 '생활수준에 대한 평가'라는 변수를 더하였다.

둘째, 대체노동력의 임금인  $w_c$ 는 주로 여성의 임금율이기 때문에 주부의 임금인  $w$ 와 정적관계에 있다고 가정하여 동일한 변수로 추정할 수 있는데, 본 자료에서는 임금을 측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를 대신할 변수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시장의 임금을 결정하는데 주로 사용되는 교육수준과 연령을 대리변수(proxy variable)로 이용하였다.

셋째, 비근로소득을 나타냄에 있어 재산소득에 대한 자료는 없으므로 자가소유에 대한 변수만을 이용하였으며, 부인의 의사결정에 있어 남편이 획득하는 소득도 일종의 비근로소득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남편의 소득정도를 나타내 줄 수 있는 남편의 교육수준과 연령을 추가하였다.

넷째, 이론적 모델에서 언급된 개인효용에 영향을 미치는 선호변수는 거주지역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 등을 선택하였다. 자녀에 대한 가치관에는 한 자녀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 아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남편이 장남인지 등에 관한 변수들이 포함된다. 이들은 수요에 대한 직접적인 효과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득이나 가격변수에 의해 설명되지 않은 부분을 더 설명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첨가되었다.

다섯째, 자녀출산에 대한 결정과정을 살펴봄에 있어 취업상태와 경제적인 요인도 중요하지만 현재 자녀수와 신체적인 조건도 간과할 수 없다. 물론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임신이 가능한 여성들만을 표본으로 하였지만, 이들의 가임능력 또는 가임선호는 연



령에 따라 그리고 이미 태어난 자녀수에 따라 매우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신체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변수로 연령을 채택하고, 현재 자녀수도 이용하였다.

여섯번째로, 취업에 대한 의지도 앞으로의 출산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현재 취업중인 여성의 경우 계속 취업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 현재 취업중이 아닌 기혼여성의 경우 취업할 생각이 있는지에 따라 다시 임신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달리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위에서 언급된 변수들을 포함한 연구모델은 다음과 같이 설정되었다.

기혼여성의 취업결정 = m(생활수준에 대한 평가, 부인의 교육정도와 연령, 남편의 교육정도와 연령, 자가소유, 거주지역, 현재 자녀수)

추가출산 = c(취업상태, 자가소유, 소득, 부인의 교육정도와 연령, 남편의 교육정도와 연령, 거주지역, 자녀에 대한 가치관, 현재 자녀수, 취업의지)

전체 표본에서 노동시장에 참가하지 않는 사람과 추가출산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종속변수 값을 0으로 갖게 되며, 이 경우 일반적인 중회귀분석을 적용하게 되면 종속변수값이 정규분포를 이루지 못했고 회귀오차항간에 동분산성을 유지하지 못하므로 적절하고 효율적인 회귀계수값을 구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본 분석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Dichotomous Logit Model을 사용하였다(Maddala 1983). 또한 recursive system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가출산식을 추정하기 위해서 취업결정식에서 도출된 취업상태에 대한 예측값(predicted value)을 이용하였다(Judge etc. 1984).

#### 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은 <표 1>과 같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분석대상: 총 2570 가계)

변 인	구 분	빈 도 (%)	변 인	구 분	빈 도 (%)
부인의 연령	25세 이하	454 (17.7)	남편의 연령	20-30세	898 (35.0)
	26-30세	1057 (41.1)		31-35세	883 (34.4)
	31-35세	693 (27.0)		36-40세	484 (18.8)
	36-40세	366 (14.2)		41세 이상	303 (11.8)
부인의 교육정도	중졸이하	779 (30.3)		남편의 교육정도	중졸이하
	고졸이하	1410 (54.9)	고졸이하		1282 (50.1)
	대재이상	378 (14.7)	대재이상		800 (31.2)
부인의 취업상태	비취업	1837 (71.5)	추가자녀	안 원한다.	1439 (56.0)
	취업	733 (28.5)		원한다.	1131 (44.0)
월평균 생활비	30만원 미만	394 (15.4)	자녀수	없음	415 (16.1)
	30-50만원	871 (34.1)		한명	875 (34.0)
	50-70만원	606 (23.7)		두명	1020 (39.7)
	70-100만원	392 (15.3)		세명 이상	260 (10.1)
	100만원 이상	291 (11.4)			
거주지역	6대 도시	1289 (50.2)	주택소유	자가	993 (38.9)
	중소도시	667 (26.0)		전세 등	1562 (61.1)
	군부	614 (23.9)			

#### IV. 결과 및 해석

##### 1. 기혼여성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연구의 표본에서는 기혼여성 중 28.3%만이 노동시장에 취업하고 있었다. 이는 전체 우리 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많이 다른데, 그 이유는 경제활동참가율을 계산할 때 취업 중은 아니지만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본 조사에서 측정된 것이 현재 기혼여성들의 취업상태를 보다 잘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조사통계에서 예측하고 있는 것보다는 취업율이 훨씬 밑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응답한 것은 예상대로 출산과 자녀양육의 문제였다.

이들의 취업을 결정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앞의 이론적 모델 및 연구 모델을 통해 제백된 설명변수들과 취업상태에 대해 단변량분석의 일종인  $\chi^2$  검증을 실시했다. 그중 남편과 부인의 연령, 남편과 부인의 교육수준, 자녀수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변수들의 효과를 통제한 후 각 설명변수들의 고유한 영향력을 측정하기 위해 다변량분석 기법들 중에 종속변수가 연속적이지 않을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Dichotomous Logit 분석을 적용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전체 모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설명변수 중에는 부인연령, 자녀수, 남편의 교육수준, 부인의 교육수준, 거주지역 등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한 변수들만을 해석해 보면, 부인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녀수가 적을수록, 부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남편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대도시에 거주하지 않을수록 기혼여성들이 취업하고 있을 확률이 높아진다. 이 중 부인의 연령과 교육수준은 임금율을 간접적으로 나타낸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론적 모델에서 예측한대로 임금율이 높을수록 취업을 많이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녀가 많을 경우 이는 취업비용을 높여게 되므로 취업에는 부적인 효과를 주고 있으며, 거주지역변수가 음으로 나타난 것은 농촌 또는 중소도시보다 대도시에서 기혼여성의 취업기회가 제한되어 있음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2> 기혼여성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Dichotomous Logit Analysis)

-2 Log Likelihood  $\chi^2$  2952.330 df -2524 significance=.0000

설 명 변 수	B값	S.E.	Sig.
<u>연속변수</u>			
부인연령	0.0891	0.0197	0.0000
남편연령	-0.0185	0.0166	0.2647
자녀수	-0.3038	0.0652	0.0000
<u>가변수(dummy)</u>			
남편 대재이상	0.4612	0.1269	0.0003
부인 대재이상	0.7177	0.1551	0.0000
대도시 거주	-0.2043	0.0923	0.0269
자가소유	0.0273	0.0988	0.7827
못산다.	0.1516	0.1086	0.1627
constant	-2.4471	0.3235	0.0000

2. 다음 자녀의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자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우선 자녀들에 대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결혼한 부부가 반드시 자녀를 두어야 한다'고 응답한 부인이 89.7%에 달하였으며, 이러한 점은 전통관습에 따른 자녀가치의 보편성을 뜻한다. 이 중 10%에 해당하는 "자녀를 반드시 둘 필요가 없다"고 응답한 부인은 주로 "자녀에게 의존할 일이 없기 때문에"가 이유인 사람들이었다. "자녀를 반드시 두어야 한다"고 응답한 부인의 그 이유는 65.8%가 "자녀를 두는 것이 삶의 본질"이라는 식의 관습적인 것에 답하였다.

아들의 필요성에 대해서 '없어도 상관없다'고 대답한 사람은 32%에 불과하였으며, 자녀가 하나만 있는 것도 괜찮다고 응답한 사람은 41.5%였다. 특이할 만한 것은 한 자녀에 대한 부정적 견해, 아들에 대한 긍정적 견해는 1985년과 1988년의 조사보다 강

화되었다는 것이다(공세권 1992).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여성의 취업기회가 확대되고 자녀양육에 경비가 많이 들게 될 경우 자녀에 대한 기대는 보다 약화되어 적은 자녀 또는 무자녀 형태로 축진될 수 있음을 이론적 모델에서는 예측하였으나, 여전히 대다수의 부인들이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는 이론부분에서 도출된 모형이 우리나라에서는 적어도 첫번째 자녀에 대한 출산결정에 대해서는 설명력이 없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의 다음 자녀출산을 결정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우선  $\chi^2$  검증을 실시했으며, 그 중 거주지역, 자가소유, 부인과 남편의 교육수준, 그리고 자녀수만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의 추정과 마찬가지로 다변량분석 기법중 Dichotomous Logit 분석을 적용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전체적으로 모델은 유의하였지만,

<표 3> 다음 자녀의 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Dichotomous Logit Analysis)

$-2\text{Log Likelihood } \chi^2 = 1602.683 \quad \text{df} = 2464 \quad \text{Significance} = .0000$

설 명 변 수	B값	S.E.	Sig.
<u>Predicted Value</u>			
취업중	- 6.8944	0.2182	0.1163
<u>연속변수</u>			
부인연령	0.0098	0.0850	0.9086
남편연령	- 0.0992	0.0292	0.0007
자녀수	- 3.3437	0.3102	0.0000
생활비	- 0.0010	0.0028	0.7230
<u>가변수(dummy)</u>			
남편 대재이상	- 0.4144	0.4268	0.3316
부인 대재이상	1.0593	0.6488	0.1065
대도시 거주	- 0.3426	0.2182	0.1163
자가소유	0.1111	0.1489	0.4554
취업의지	0.1593	0.1430	0.2653
장남	0.0853	0.1316	0.5171
한명도 괜찮다.	- 1.3113	0.1465	0.0000
아들이 꼭 필요.	0.5390	0.1462	0.0002
constant	9.5948	0.5922	0.0000

그 설명력은 앞의 취업결정모형보다 떨어졌으며, 설명변수들 중에는 남편의 연령, 자녀수, 자녀가치관만이 유의한 변수로 나왔다.

신체적인 조건을 고려할 때 부인과 남편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녀를 더 가지려 할 확률은 낮아질 것이라 예상하였으나, 그 중 남편의 연령만이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부인의 연령은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양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수가 많아질수록 다음 자녀를 가질 확률이 줄어든다는 것은 쉽게 예측할 수 있었던 결과이며, 자녀가치관 역시 마찬가지이다. 특히 이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 경우 추가자녀를 가지려 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자녀가 한명이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자녀를 갖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점은 이론 모델에서 예측했던 취업변수와 소득 및 교육수준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취업의 경우 예측대로 음의 영향을 보였지만 유의하지 않게 나왔으며, 양의 영향을 예측했던 소득의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지만 음의 방향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근로소득을 나타내는 자가소유는 예측대로 양의 방향이었으나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는 자녀에 대한 출산결정에 있어 경제적 변수들의 설명력이 그리 크지 않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추가로 자녀를 가지려 하는 가정에서도 사람들은 출산 및 양육의 경제적 비용을 고려한다기보다는 추가 자녀를 갖고자 하는 선호를 더 중시한다고 볼 수 있다.

## V. 결론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지금까지 설명한 신고전파적인 경제활동에 대한 모형의 기본적인 전제는 어떤 개인의 노동공급에 대한 의사결정은 소비자이면서 동시에 노동공급자인 개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의 결과로 도출된다는 점이며, 이때 개인의 선호체계는 주어진 것으로 받아 들였다. 현실과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추상적인 이론 모형이지만, 부분적인 가정을 완화시킴으로써 현실 분석을 위한 기본적인 틀로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

었다.

기혼여성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부인연령, 자녀수, 남편의 교육수준, 부인의 교육수준, 거주지역 등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인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녀수가 적을수록, 부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남편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대도시에 거주하지 않을수록 기혼여성들이 취업하고 있을 확률이 높아졌다.

추가 자녀의 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남편의 연령, 자녀수, 자녀가치관만이 유의한 변수로 나왔다. 신체적인 조건을 고려할 때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녀를 더 가지려 할 확률은 낮아질 것이라 예상하였으나, 그 중 남편의 연령만이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자녀수가 많아질수록 다음 자녀를 가질 확률이 줄어든다는 것은 쉽게 예측할 수 있었던 결과이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점은 이론 모델에서 예측했던 취업변수와 소득 및 교육수준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결국 추가로 자녀를 가지려 하는 가정에서도 사람들은 출산 및 양육의 경제적 비용을 고려한다기 보다는 추가 자녀를 갖고자 하는 선호를 더 중시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결국 출산을 하나의 경제행위로 분석하는데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맥락에서 자녀로부터 부모가 얻게 되는 만족감과 비용의 적절한 측정치를 정의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도 자료상의 한계로 대리변수들을 이용할 수 밖에 없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가계생산된 상품의 측면에서 자녀출산과 노동공급만을 분석하였을 뿐, 이론적 모델에서 개발된 부분 중 중요한 부분인 생산요소 수요함수를 추정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는 계속 취업을 수행하는 기혼여성의 경우 자녀양육을 위해 어떠한 인적, 물적, 그리고 시간 자원을 활용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여성노동력의 공급을 꾀할 수 있는 정책안을 개발할 수 있다고 본다.

## [참고문헌]

- 1) 광세권 등, 한국에서의 가족형성과 출산행태, 한

- 국보건사회연구원, 1992.
- 2) 구성열, "기혼여성의 경제활동과 출산력," 한국개발연구 1(3), 1979: 131-146.
  - 3) 구성열·이숙민, "가족규모의 결정요인과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한국개발연구 2(4), 1980: 95-111.
  - 4) 변화순, "영세지역 아동보육 및 환경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7(3), 1989: 5-42.
  - 5) 심경옥,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요인분석: 한국의 실증분석결과를 중심으로," 여성연구 2(2), 1984: 72-100.
  - 6) 어수봉, 한국의 여성노동시장, 한국노동연구원, 1991.
  - 7) 유가효·박혜인·조희금·박충선, "대구지역 생산직 기혼여성의 취업 및 가족생활실태파악과 대책수립에 관한 연구 (Ⅱ)," 대한가정학회지 30(1), 1992: 283-310.
  - 8) 조대희·김유경, 최근의 출산력 변동요인과 인구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3.
  - 9) 한국여성개발원, 탁아사업보고서, 사업보고서 400-12, 1988.
  - 10) Becker, G. "A Theory of the Allocation of Time," Economic Journal, 75, 1965: 493-517.
  - 11) Bowen, William G. and Finegan, T.A. The Economics of Labor Participation, Princeton, N. 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9.
  - 12) Cain, Glen G. and Dooley, Martin D. "Estimation of a Model of Labor Supply, Fertility, and Wages of Married Wome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4(4), 1976: 179-199.
  - 13) Deaton, A. and Muellebauer, J. Economics and Consumer Behavior,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0.
  - 14) Judge, G.G. etc. The Theory and Practice of Econometrics, Second Ed.,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1984.
  - 15) Kim, Sookon, "Cross-Substitution between Husband and Wife as One of the Factors Determining Married Women's Labor Supply," Journal of Economic Development, 2(1), 1977: 131-145.
  - 16) Maddala, G.S. Limited-Dependent and Qualitative Variables in Econometr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3.
  - 17) Mincer, J. "Labor Force Participation of Married Women: A Study of Labor Supply," in Aspects of Labor Economics,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2: 63-97.
  - 18) Schultz, T.W. ed. Economics of the Family: Marriage, Children, and Human Capital,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2.